

보도자료

Swiss Re Institute의 최신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보험료는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성장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임

- 2016년에 글로벌 보험료는 3.1% 증가함; 2015년의 4.3% 대비 감소
- 선진시장의 실적 둔화로 인해 2016년 생명보험료 성장률은 2.5%로, 손해보험료 성장률은 3.7%로 둔화됨
- 저금리 환경 및 경쟁 심화에 따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분야의 수익성이 악화됨
- 중국의 생명보험료 및 손해보험료가 대폭 증가했지만, 다른 수많은 이머징마켓 국가들은 둔화된 모습을 보임
- 이머징마켓이 글로벌 보험료 성장을 계속 견인할 것임; 선진국에서의 경제활동 개선으로 인해 손해보험 섹터가 탄력을 받을 것임
- 특별 챗터: 보험업계에서 디지털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및 브로커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취리히, 2017년 7월 5일 - 2016년에 글로벌 보험료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3.1% 증가했는데,¹ 이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Swiss Re Institute의 최신 시그마보고서는 분석했다. 2015년에 비해 하락한 글로벌 보험료 성장률의 주요 원인은 선진국이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수많은 이머징마켓의 성장률도 둔화되었다. 2015년에 4.4%를 기록했던 글로벌 생명보험료 성장률은 2016년에 2.5%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선진시장 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이머징 지역 전반의 생명보험료가 장기 평균의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글로벌 보험료는 2016년에 3.7% 성장했는데 이는 이머징 마켓들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확장 및 중국의 또 한 번의 탁월한 실적에 따른 것이다. 이머징마켓은 향후 수 년간 생명보험료의 개선을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가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손해보험료 성장률은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시장의 탄탄한 경제활동이 관성을 뒷받침해줄 것이다.

¹ 달리 언급하지 않은 경우, 모든 성장률 수치는 실질가치 기준임(즉, 현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Daniel Staib, Zurich
Telephone +41 43 285 8136

Mahesh H. Puttaiah
Telephone + 9180 4900 2127

Kurt Karl, Armonk
Telephone +1 914 828 8686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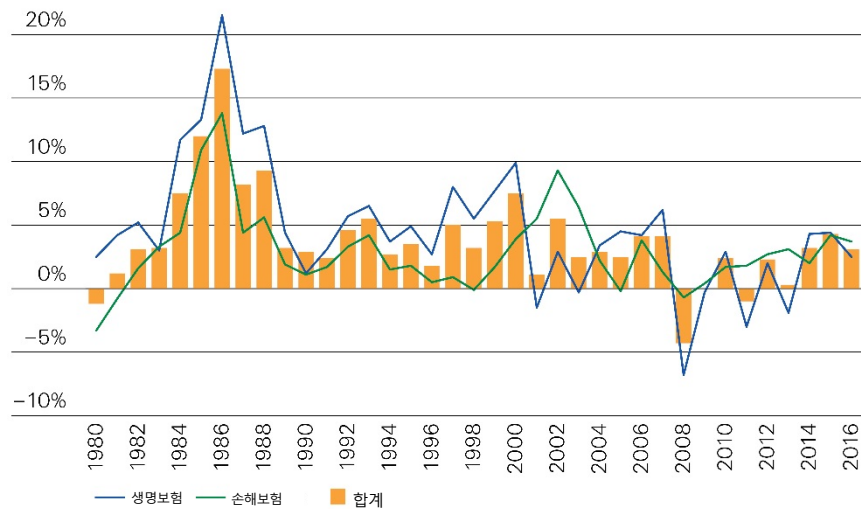
www.swissre.com
 @SwissRe

총 원수보험료는 2016년에 실질가치 기준으로 3.1% 성장했는데, 이는 2015년의 4.3%에 비해 낮은 것이다. 2016년의 이러한 성장률은, 단지 2.5%에 불과했던 글로벌 경제성장률(보험 수요의 핵심 원동력)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이다. USD 명목가치 기준으로 글로벌 보험료는 2.9% 증가했다. 영국과 일부 신흥 시장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명목가치 기준 성장률이 실질가치 기준 성장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섹터에서 중국의 성장엔진 가속화

글로벌 원수 생명보험료는 2016년에 총 USD 2조 6170억에 달했는데,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5년의 4.4% 성장률에 비해 둔화된 것이지만, 10년 평균 성장률 1.1%에 비해 여전히 높다. 중국에서의 빠른 성장에 주로 힘입은 이머징 마켓이 여전히 글로벌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 보험료가 17% 증가하여 10년 평균 성장률 8.4%의 두 배를 초과했다. “중국의 생명보험 섹터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이코노미스트 Kurt Karl은 언급했다. “전통적인 생명보험상품의 판매가 매우 활발했는데, 이는 금리의 추가적인 자율화, 그리고 보장상품의 성장을 장려한 정부측 노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림 1: 글로벌 실질 직접보험료 성장률, 1980-2016. (차트를 클릭하여 *sigma explorer*로 이동).



출처: Swiss Re Institute

중국을 제외하면, 이머징마켓 전반의 생명보험료 성장률은 위 수치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여전히 5.7%라는 탄탄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성장에 힘입은 결과이다.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 선진시장의 경우 2016년에 보험료가 0.5% 감소하여, 10년간 이어진 보험료 침체 추세가 지속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글로벌 보험료는 2016년에 3.7%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의 4.2%에 비해 낮지만 10년 평균인 2.0%에 비해서는 높다. 이머징 마켓의 보험료 성장률은 역시 9.6%의 탄탄한 수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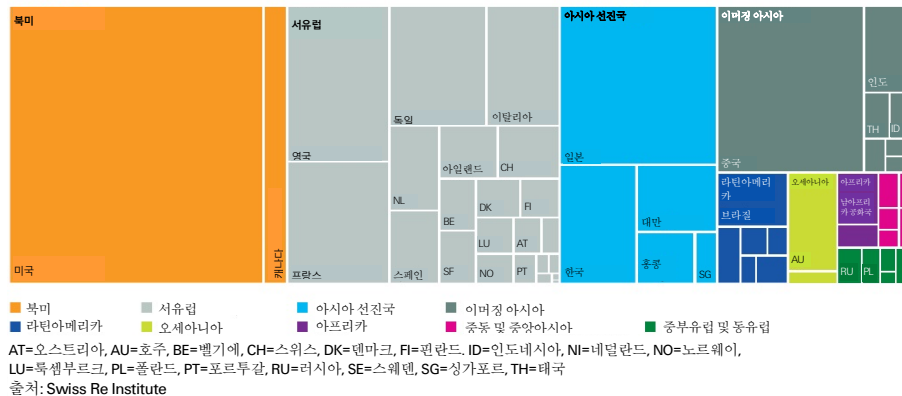
기록했으며, 10년 평균인 8.3%를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머징마켓의 결과는, 손해보험료가 20% 증가한 중국에 의해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의 급증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속적이지만 둔화 중인 수요가 중국의 손해보험료 상승을 뒷받침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머징마켓 전반의 보험료 증가율은 1.7%에 그쳤다. 선진시장의 손해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에 2.3%로 (2015년: 3.3%) 둔화되었지만, 이는 10년 평균인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둔화 및 요율 하락으로 인해 모든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오세아니아 제외).

중국, 세계 3위의 보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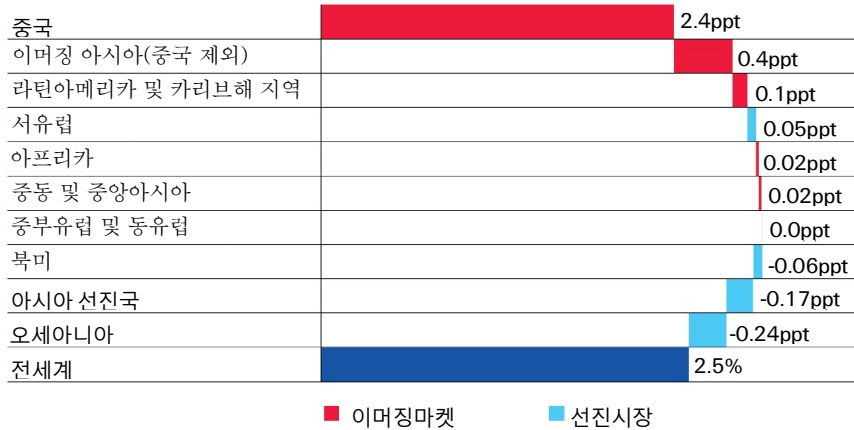
2000년에 중국은 총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16위 규모 시장이었다. 2016년 총 보험료가 USD 4660억에 달한 중국은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세계 2위 규모 시장인 일본(USD 4710억)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규모이지만, 미국(USD 1조 3500억)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이다. 아래의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은 2015년부터 세계 3위로 올라선 중국시장 성장을 추적한 것이다.

그림 2: 지역별 총 보험료, 2016년 (차트를 클릭하여 *sigma explorer* 로 이동).



생명보험의 경우, 2016년 보험료 증가에 중국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작년의 전세계 섹터 보험료 증가율 2.5% 중에서 중국은 2.4 퍼센트 포인트(ppt)만큼 기여했다. 기타 모든 시장들은 나머지 0.1 ppt 기여에 그쳤다 (그림 3 참조). 손해보험의 경우, 지역별/국가별 기여도가 비교적 균형적이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중국이 상당히 높은 보험료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선진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 글로벌 섹터 성장률 3.7% 중에서 북미와 서유럽 지역이 종합적으로 1.8 ppt만큼 기여했으며, 중국은 1.7 ppt만큼 기여했다.

그림 3: 실질 생명보험료 성장률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2016년



출처: Swiss Re Institute. (<http://www.sigma-explorer.com/tm/>)

저금리,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압박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수익성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섹터 모두 2016년에 자기자본이익률 하락을 겪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수많은 시장의 완만한 보험료 성장률 또한 수익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손해보험 섹터는 언더라이팅 실적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손해보험 섹터는 재해손실의 증가 및 전년도 손실준비금 환입 감소로 인해 지난 4년 중 처음으로 언더라이팅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섹터 모두 충분한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 성장률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률은 압박을 받을 전망

이머징 마켓(특히 중국 및 인도)에 주로 힘입어 글로벌 생명보험료 성장률이 향후 수년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시장도 성장할 예정이지만 그 성장률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의 성장률이 서유럽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손해보험 성장률은 여전히 미미할 것이며, 선진국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성장률은 북미 및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개선될 예정이지만 서유럽 및 오세아니아에서는 답보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머징 마켓은 탄탄한 성장을 하되 최근 수 년에 비해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할 것이며 인도가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금리를 보장하는 전통적인 저축상품을 운용하는 일은 향후에도 생명보험사 수익성에 대한 주요 난제가 될 것이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가입 증가를 위해 매력적인 저축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생명보험사들은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전통적인 저축상품에서 생명보호

상품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전히 낮은 투자수익률을 감안할 때, 그리고 소프트한 시장상황의 지속과 준비금 환입 감소로 인해 언더라이팅 실적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판매의 지속적인 성장; 중개기관들은 살아남을 것임

이 시그마보고서에는 보험의 디지털 판매 현황에 대한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수 년간 일부 시장에서 디지털 직접 판매 채널들이 급증해왔다. 이와 동시에, 중개기관을 통한 전통적 보험업무의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다. 보험 판매의 디지털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변화의 속도는 시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디지털 채널은 결국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구매완료 및 판매 후 서비스를 아우르는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보험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개기관들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